

전주·완주 개편 버스노선 본격 운행

전주시, 출·퇴근 시간대 노선·환승지 등 안내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더 편리해지고 더 빨라진 새로운 노선을 따라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노선 개편 안내에 나섰다.

이번 60년만의 첫 노선개편은 시내 버스를 변화된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생활패턴에 맞게 6개축으로 다양화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민들을 위한 교통 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이 시민 생활 속에 정착될 때까지 달라진 노선에 대한 안내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노선개편 시행 첫 날인 20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개편 내용을 숙지한 550명의 직원을 주요정류장 200개소에 배치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달라

진 노선과 주요환승지 등을 안내했다.

또한 시는 노선개편 도우미인 전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전주대환승센터 등 시내버스 주요 승강장에 배치하고, 주요노선과 환승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버스탑승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선개편 관련 홍보 및 시민들의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상황실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 시민교통과 직원과 콜센터 직원들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노선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jonjui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노선개편 주요내용 안내 및 종합시간표 등 관련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노선개편에

따른 노선도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 안내방송, 버스노선 LED전광판 등 버스 정보 오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노선도 기재 오류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 안내 오류 △버스 안내 방송 오류 △노선개편 후 이용 불편 등으로, 전화(063-281-2983), 전주시 홈페이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신고 중 안내 등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및 각 버스운송회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거쳐 내실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선개편 후 이용 불편 등은 접수 후 심도 있는 검토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58년 최초 노선인 팔달로(동산동~남부시장) 노선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편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해 온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해 완주군

과의 노선개편 TF위원회 구성, 교통수요 분석, 주민설명회,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노선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해 간선노선과 순환노선을 만들고 시간간격 도입 등을 통해 더 편하면서도 더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도록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팔달로 단일축에서 간선축을 동서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다양화하고, 순환축과 희망 노선축을설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122개 노선 중 59개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34개 노선은 부분 개편됐다. 또, 29개 노선은 폐지되는 대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15개 노선이 신설됐다.

/김영재 기자

“효천지구 아파트 적정가 867만원”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분양가 높을 이유 없다”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고분양가는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추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주시에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신청 가격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서 주택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효천사업지구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전주시 아파트분

양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직 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아파트 분양가 산정 결과, 평당 적정 분양가는 867만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은 해당사업지구의 용적률에 의해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는데 효천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200%로, 실제 택지공급가격은 3.3㎡당 276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가격의 구성 비율을 보면 택지공급가격은 약 20~30%, 건축비 70~80% 정도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해 적정 분양가를 산출하면 평당 분양가 867만원으로도 건설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비행기보다 빠른 신개념 고속열차 개발 나선다

전주시, 고강도·초경량 미래소재인 탄소 소재 활용

전주시가 고강도·초경량 미래소재인 탄소소재를 활용해 비행기보다 빠른 신개념 고속열차 개발에 나선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이하 기술원)은 이날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탄소산업의 상용화 확대를 위해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퍼루프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TESLA사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고안한 것으로, 공기저항을 없앤 진공터널 안에서 열차를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행해 비행기보

다 빠르고 KTX보다 4배 정도 빠른 1,200km로 달리는 차세대 이동수단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초고속 운송수단과 탄소섬유 복합재, 3D프린팅 등 각 기관별 특화·주력하고 있는 차세대 수송기기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하이퍼루프 관련 기술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과 상호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원은 또, 하이퍼루프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승객운용캡슐과 운반선로인 진공 튜브에 탄소섬유를 접목하

는 등 제작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UNIST에서는 하이퍼루프의 추진체인 리니어 모터와 운반선로를 설계해 담당하는 등 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원은 UNIST와의 이번 협약으로,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해온 기술원이 차세대 운송수단인 하이퍼루프까지 탄소산업의 활요 분야를 확장해 전주가 세계적인 탄소산업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철도 4배 강하면서도, 무게는 10분의 1에 불과한 탄소소재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해 탄소산업을 적극 육성해왔다. /김영재 기자

다친 자신 이송시켜준 소방관 폭행한 70대 집요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운원 판사는 20일 다친 자신을 이송시켜주고 있는 소방관을 구급차안에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임모씨(70,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6년 7월 10일 오후 2시 58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대자인병원으로 이동 중인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A씨(27,남)의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119로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연탄 나눔 봉사활동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전주발전에 기여해 온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회장 최찬욱, 93년 체육장) 회원 40여명은 이날 전주시 노송동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달된 사랑의 연

탄은 최찬욱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추위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이날 앞치마를 두르고 노송동 일대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사랑의 연탄 2,000여장을 전달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완산경찰서, 5대범죄 예방·검거 대책 회의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5대범죄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검거 대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황수 서장의 주관으로 관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5대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가지 강력사건으로 지난 1

개월 동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하여 시간대별, 요일별, 장소별 범죄를 분석하여 다각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취약지역에 경력을 집중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등 동

일수법 미검 범죄 검거를 향상을 위한 협조 및 정보교류를 실시하였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범죄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는 필히 검거할 수 있도록 분석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거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형사와 지역경찰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하여 검거방안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민근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주현대미술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